전법 일기

남다른 부처님 인연 교법사로 이어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이 매우 깊었다.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독실한 불자셨고, 특히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하고 조계사합창단을 지휘하셨을 정도로 불교와 가까웠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3살 때부터 조계사를 놀이터 가듯이 갔던 기억이 난다.

남달리 종교성이 강하고 철학적이었던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주와 생명 그리고 삶과 죽음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 때에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며 명상을 수행했다. 불교 교리는 〈불광〉 잡지로 입문했고, 김정빈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란 책으로 위빠사나를 해보았다. 고등학교를 불교종립학교로 진학한 뒤에는 더 불교에 빠져들었다. 학교 교법사님들의 종교 수업을 통해 불교를 더 명확하게 학습했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의 예절과 문화를 습의했다. 여름 수련회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고등학교 친구가 나보고 미래의 법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시절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을 불교로 다스리고자 노력했다. 결국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한 지나친 학문적 접근에 회의가 들었고, 부처님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교직과정을 이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동대부고에서의 방과 후 강사 경험을 하고, 결국 내가 갈 곳은 교육현장이란 것을 직감했다. 그렇게 일반 학교에서 도덕 윤리교사로 일한지 약 7년 정도가 흘렀을 때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바로 미국 보스턴 문수사에서 국제포교사를 뽑는 것이었다. 해외 포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과감하게 교편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의 한인 사찰에서 현지인들과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경전을 가르치고 불교 명상을 지도했다. 그곳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할 길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때 난 부처님께 내가 가야할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를 했고, 내 안의 부처님께선 한국에 돌아가 법을 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법사였던 것이다. 우선 한국에 돌아와 미국서 경험한 영어를 살려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 외국인 담당 역할을 맡아 일했다. 하지만 결국 직접적인 불교와 철학 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금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으로 이끌었다. 때마침 불교재단 광동학원에서 도덕윤리 교사이면서 교법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나는 임용 시험을 거쳐 결국 불교종립 중학교의 정식 교법사가 되었다. 여러 길을 거쳐 다채로운 경험을 한 끝에 부처님 법을 학교 전선에서 전하는 법사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범준
광동중 교법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⑤ 의료기술에 대하여

질병의 인연에 대해 고찰하라

현대과학에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바이오테크놀로지(BT)는 최첨단 분야에 해당하며 제행무상을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최종 적용은 욕망과 연결되며 의술과 진료의 합성어인 의료와 직결된다. 그만큼 의료현장은 생명을 중심에 두고 질병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해부생리학은 의학의 기초로서, 해부학은 정상적 형태를 학습하는 분야이며, 생리학은 해부학적 형태가 지니는 올바른 기능을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상이 발생한 것은 병리학 과목에서 다루게 된다. 생명(生) 현상의 이치(理)를 검토하는 생리학(生理學)에서 벗어날 경우, 질병(病)에 대한 이론(理)이라는 측면은 병리학(病理學)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질병'을 뜻하는 'disease'는 쉽지(ease) 않다(dis)는 뜻이다. 즉 정상에서 벗어나 있기에 쉽지 않음이라는 상태는 질병으로 규정된다. 또 질서(order)에서 이탈된(dis) 상태인 'disorder' 역시 질환을 뜻한다.

한자에서는 질병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상태(疒)를 기본으로 한다. 질(疾)은 화살(矢)처럼 그 병세의 진행이 빠른 것을, 또는 화살 같은 뾰족한 것에 의한 상처로 통증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병(病)은 질병의 진행에 따른 발열(丙)의 증상을 지시하는 말이다. 환(患)이란 꿰뚫리는(串) 통증으로 마음(心)이 아픈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질환병(疾患病)은 통증, 발열, 감염 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말한다. 이는 현대 병리학에서 질병의 일차적 증상인 염증을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명 다루는 의학기술 빠르게 변화 중
사람 살리는 의료, 종교 가르침과 유사
기술에 매몰되면 生의 이치 놓치게 돼

생명 존중의 정신은 불살생으로 이어진다. 이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현장의 정신이 살생을 금지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종교는 상호 교섭의 접점을 지닌다. 물론 의료와 종교에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 국한되는가 여부의 차이는 있다.

〈불설불의경(佛說佛醫經)〉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질병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래 앉았기만 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 둘째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는 것, 셋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넷째 피로가 극도에 달하는 것, 다섯째 마음껏 음탕하게 노는 것, 여섯째 성을 내는 것, 일곱째 대변을 참는 것, 여덟째 소변을 참는 것, 아홉째 상풍(上風)을 제지하는 것, 열째 하풍(下風)을 제지하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인연으로 병이 생기는 것이다.

(T17, p.737b14-18)

불전(佛典)이 알려주는 질병의 인연을 생각해 본다. 불교적 입장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기검진과 규칙적 운동,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등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의 기본을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적 상태로 이어진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며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의 연기적 흐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료적 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행위는 생명의 이치(生理)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문화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요즘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MZ세대 사이에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연등회 등의 현장에서도 20~30대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였다.

여기에는 '뉴진 스님'이라는 부캐로 EDM 공연 등을 진행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인기도 한 몫했다. 승복 착용을 둘러싼 논쟁과 말레이시아 불교계의 입국 금지 조처 등 잡음이 들리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힙한 불교'라는 현재의 유행은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는 2030세대의 버킷리스트가 됐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찰음식은 베지터리안들의 대표적인 최애 음식으로 발돋움했다.

그래서인지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명작' 불교 웹툰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수상작인 공명 작가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비롯해 고사리박사 작가의 '극락왕생', 한혜연 작가의 '세화, 가는 길'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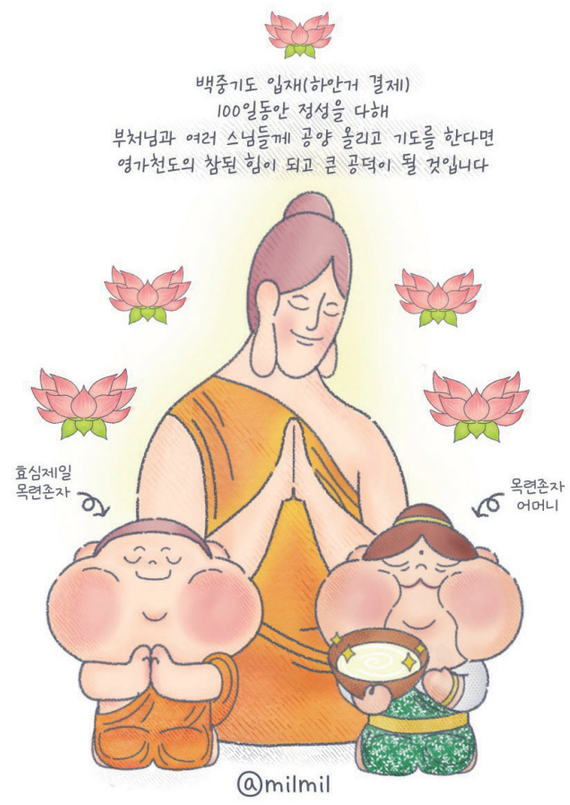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시대에 맞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의 작가, 크리에이터 등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계의 인프라가 다른 종교에 비해 작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웹툰의 경우 기독교계는 '에끌툰'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독교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중 실제 몇몇 작품들은 상업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작활동이 생업인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장(場)이 필요하다. 웹툰 공모전이나 국악 콩쿨 등을 통한 신인 발굴부터 창작 플랫폼 구축 등 소위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불교계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잘 구축된 '문화 생태계'는 불교 전법포교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뉴길 교통사고에
산산조각난 가장의 꿈

네팔 이주민노동자 카미씨, 가족 위해 공장일에 농장까지
눈길 교통사고로 고관절탈구 · 다리골절…병원비 · 빚 25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